

음주예방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효과

최순희[†] · 박민정^{*}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 *송원대학 간호과

Effect of Drinking Prevention Program on Drinking Related Knowledge, Attitud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Behavior of Vocational High School Girls

Soon Hee Choi[†] · Min Jung Park^{*}

College of Nursing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in Songwon College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drinking prevention program on the levels of drinking related knowledge, attitud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behavior of vocational high school girls.

Methods: Pre-post test design. The subject was used for a group of high school girls. The data were collected on May and September, 2006 and June, 2007 and analyzed using paired t-test.

Results: The drinking-related knowledge score after one year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pretest ($t=-14.02$, $p=.001$) and the drinking-related attitude score was lower ($t=2.85$, $p=.006$). Th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the drinking behavior measured as number of drinking events, amount of alcohol and number of heavy drinking even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retest and post test after one year.

Conclusion: Drinking prevention program should be given to increase th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decrease or prevent the drinking behavior of high school girls every semester at least.

Key words: Prevention, Knowledge, Attitude, Self-efficacy, Drinking behavior

* 이 논문은 2007년도 전남대학교 연구년 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접수일 : 2010년 3월 9일, 수정일 : 2010년 4월 27일, 채택일 : 2010년 5월 4일

† 교신저자 : 최순희(광주광역시 동구 학1동 5번지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Tel: 062-220-4345, Fax: 062-227-4009, E-mail: sh3749@hanmail.net

(본 논문의 공저자 박민정은 송원대학 간호과 시간강사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성인이 된 후에 음주문제를 지닐 위험이 높으며, 폭음 등 잘못된 음주행위가 교정되지 않은 상태로 성장할 경우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성 음주자가 될 수 있다(정다희, 2005).

실제로 우리나라 일 지역 청소년들의 음주율은 2001년 75.9%에서 2006년 91.3%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여학생의 음주빈도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2배 가량 증가했다(류나미와 윤혜미, 2006). 또한 문제성 음주율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고(정다희, 2005), 여성이 남성보다 동일한 음주량의 해로운 효과가 더 크다(Tuomilehto 등, 2001)는 보고들을 통해서 그 동안 음주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으로 여겨지던 여학생 음주행위의 심각성을 감지할 수 있었다(Qian 등, 2006).

고교생의 음주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영향요인은 친구음주환경, 음주결과기대, 자기효능감이었고 음주관련지식도 역상관으로 나타났으며(조화래, 2006), 금주의도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 지각된 행위통제였고 음주 비경험자가 금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김수옥, 2008).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음주가 대인관계증진에 유익하고 정서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음주결과기대가 만연해 있으며, 실제로 고교생의 60% 이상이 술의 습관성이나 금단증상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 인문계 고교생보다 문제성 음주율이 더 높았다(배상민, 2000). 또한 여고생의 68.7%가 고교생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고(감신 등, 2000), 여고생의 음주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더 높았다(정연옥, 1999).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실업계 여고생의 음주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강화시키는 음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태도정립과 아울러 음주거절에 대한 자기효능을 높임으로써 음주행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고교 교사의 60.8%가 학생 대상으로 음주예방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남궁기 등, 2001),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보다 폭음과 음주문제 경험률(윤혜미 등, 1999)이나 음주동기(강혜영 등, 2004)도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실업계 여고생을 위한 음주예방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고교생 대상으로 음주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 소수의 연구결과들에서 남고생의 1개월 후 지식증가는 있었으나 태도나 음주량의 변화는 없었고(김지은, 2001a), 실업계 남고생의 1달 후 음주거절 자기효능증가와 음주빈도/음주량의 감소(임경미, 2002)나 인문계 여고생의 2달 후 음주지식 증가와 음주행위감소가 나타나 그 프로그램들의 단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그 효과의 지속성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최남희, 2005). 또한 이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주로 지식전달과 음주기대감소, 음주거절 및 자기주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음주태도나 음주행위에 대한 효과는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예방프로그램은 적정시기에 제공되어야 비용이나 효과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Ellickson 등, 2005)과 더불어 대상자에게 적절한 다양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야 음주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음주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거나 1회성의 일방적, 수동적인 교육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학교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적절한 술과 여성에 대한 이해,

돼지 간 실험 등의 대상자 중심 음주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에게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3개월 후와 1년 후에 재측정·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여고생의 음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내용의 적절성과 그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여 음주예방교육의 실시빈도 결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1. 음주예방 프로그램 제공 전과 종료 3개월 후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 정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음주예방 프로그램 제공 전과 종료 1년 후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 정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3. 음주예방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와 1년 후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 정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음주예방 프로그램 제공 전과 종료 후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원시실험설계인 단일군 시차설계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S시 지역 일 실업계여고 1학년생

중 2개 반 6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먼저 연구자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교의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2006년 5월에 1차 사전조사를 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인 9월에 2차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종료 1년 후인 2007년 6월에 3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내용에 대한 응답이 부실한 대상자 5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3. 연구 도구

1) 음주관련 지식

지식 측정을 위해 김지은(2001a)의 음주관련 지식도구 10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관련문헌(이경희, 2004)을 검토한 후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한 문항에 새로운 7문항을 첨가해 총 15문항의 도구를 구성하였다. 본 도구는 2명 보건교사의 자문을 받아 예비조사를 거쳐 사용하였으며,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0점 처리하여 점수범위는 0~15점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KR-20(Kuder-Richardson-20)은 .77이었다.

2) 음주관련 태도

태도 측정을 위해 김지은(2001a)의 음주관련 태도 10문항을 토대로 제갈정(2001)의 태도도구 중 대상자에게 적합한 5문항을 추가한 총 15문항의 4점 척도를 구성하였고, 2명의 보건교사의 자문을 받아 예비조사를 거쳐 사용하였으며, 점수범위는 15~60점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음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78이었다.

3) 음주거절 자기효능

본 도구는 조희(2000)가 사용했던 음주거절 자기효능 도구인 7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거절의 자기효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조희(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4) 음주행위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음주행위를 음주횟수와 음주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지난 1달 동안 1잔 이상 마신 음주횟수와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을 표준잔으로 계산한 1회 평균 음주량으로 측정하였다. 표준 잔의 정의는 포함된 알코올 함량을 기준으로 소주 1병=7잔, 맥주 큰 병=2.5잔, 맥주 중간 병=2잔, 캔/맥주 작은 병=1잔, 막걸리 1병=4.5잔, 청하 1병=3.5잔으로 계산하였다(임경미, 2002).

5) 음주예방프로그램

음주관련 지식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음주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해 김지은(2001b)의 6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토대로 2명의 보건교사의 자문을 얻어 대상자에게 맞게 재구성한 총 8시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연구진행 절차

연구진행 절차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인 보건교사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연구에의 참여를 서명으로 허락받은 후 1차 자료수집으로 사전조사를 하였고, 보건교사가 정규시간에 4주 동안 주당 1시간씩 2회 총 8시간의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2차 자료수집은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에, 3차 자료수집은 프로그램 종료 1년 후에 각각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공한 음주예방 프로그램 내용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 프로그램 소개, 술에 대한 마인드맵 작성 및 발표(2시간: 강의, 그룹토의, 비디오 시청)
- 음주가 간에 미치는 영향(1시간: 돼지 간 실험 및 강의)
- 술과 여성(1시간: 비디오시청 및 토의)
- 가상 음주체험(1시간: fatal vision 착용 후 선 따라 걷기)
- 스트레스 관리(1시간: 스트레스 정도 측정과 이완요법 실시)
- 모의재판을 통해 음주문화 살피기(1시간: 주어진 상황에 대한 그룹별 역할극 발표하기)
- 음주거절(1시간: 음주권유 경험 및 대응방법에 대한 그룹토의 및 발표)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주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제공 전과 종료 3개월 후, 제공 전과 종료 1년 후 그리고 종료 3개월 후와 1년 후 각각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에 대한 차이검정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대상자의 가족 형태는 핵가족 92.4%, 대가족 7.6%였고, 학교성적은 ‘중’이 51.5%, ‘하’가 33.3%, ‘상’이 15.2%였다. 대상자의 77.3%가 음주경험을 하였고 과거에 음주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던 대상자는 80.3%였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 | (n=61) |
|-----------------------------|----------|--------|
| Variable | N(%) | |
| School performance | | |
| High | 9(15.2) | |
| Middle | 32(51.5) | |
| Low | 20(33.3) | |
| Family type | | |
| Nuclear | 58(92.4) | |
| Large | 3(7.6) | |
| Drinking experience | | |
| Yes | 51(77.3) | |
| No | 10(22.7) | |
| Drinking prevention program | | |
| Participated | 10(19.7) | |
| Not participated | 51(80.3) | |

<Table 2> Comparison of Drinking related Knowledge, Attitud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Behavior Between Pretest and After 3 Months

| (n=61) | | | | |
|--------------------------------|-----------|----------------|--------|------|
| Variable | Pretest | After 3 months | t | p |
| | M±SD | M±SD | | |
| Knowledge | 4.7±2.23 | 11.4±2.27 | -17.47 | .001 |
| Attitude | 23.3±4.65 | 18.8±5.50 | 5.06 | .001 |
|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 17.8±3.60 | 21.6±2.66 | -6.33 | .001 |
| Drinking behavior | | | | |
| No. of drinking | 0.9±1.68 | 0.6±2.02 | 0.88 | .382 |
| Drinking amount | 4.1±4.27 | 1.2±3.00 | 4.42 | .001 |

2. 음주예방 프로그램 제공 전과 종료 3개월 후 음주관련 지식,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 비교

음주예방 프로그램 제공 전과 종료 3개월 후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지식 점수는 종료 3개월 후가 제공 전보다 유의한 차이($t=-17.47$, $p=.001$)로 높았고, 태도점수는 종료 3개월 후가 제공 전보다 유의한 차이($t=5.06$,

$p=.001$)로 낮았으며, 음주거절 자기효능은 종료 3개월 후가 제공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t=-6.33$, $p=.001$). 음주행위 중 음주횟수는 음주예방프로그램 제공 전과 종료 3개월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0.88$, $p=.382$), 종료 3개월 후 음주량은 제공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t=4.42$, $p=.001$)<Table 2>.

3. 음주예방 프로그램 제공 전과 종료 1년 후 음주관련 지식,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 비교

음주예방 프로그램 제공 전과 종료 1년 후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지식 점수는 종료 1년 후(10.4)가 제공 전(4.7점)보다 유의한 차이($t=-14.02, p=.001$)로 높았고, 태도 점수는 종료 1년 후(20.7점)가 제공 전(23.3점)

보다 유의한 차이($t=2.85, p=.006$)로 낮았으며, 음주거절 자기효능은 종료 1년 후(18.4점)와 제공전(17.8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70, p=.484$).

음주행위 중 음주횟수는 음주예방프로그램 제공 전과 종료 1년 후 각각 0.9회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0.92, p=.927$), 종료 1년 후 음주량(2.6잔)은 제공 전(4.1잔)보다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97, p=.054$) <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Drinking related Knowledge, Attitud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Behavior Between Pretest and After 1 Year

| Variable | Pretest | After 1 year | t | p |
|--------------------------------|-----------|--------------|--------|------|
| | M±SD | M±SD | | |
| Knowledge | 4.7±2.23 | 10.4±2.28 | -14.02 | .001 |
| Attitude | 23.3±4.65 | 20.7±4.88 | 2.85 | .006 |
|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 17.8±3.60 | 18.4±4.40 | -0.70 | .484 |
| Drinking behavior | | | | |
| No. of drinking | 0.9±1.68 | 0.9±1.87 | -0.92 | .927 |
| Drinking amount | 4.1±4.27 | 2.6±3.76 | 1.97 | .054 |

<Table 4> Comparison of Drinking related Knowledge, Attitud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Behavior Between After 3 Months and After 1 Year

| Variable | After 3 months | After 1 year | t | p |
|--------------------------------|----------------|--------------|-------|------|
| | M±SD | M±SD | | |
| Knowledge | 11.4±2.27 | 10.4±2.28 | 2.25 | .028 |
| Attitude | 18.8±5.50 | 20.7±4.88 | -2.19 | .032 |
|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 21.6±2.66 | 18.4±4.40 | -7.20 | .001 |
| Drinking behavior | | | | |
| No. of drinking | 0.6±2.02 | 0.9±1.87 | -0.72 | .434 |
| Drinking amount | 1.2±3.00 | 2.6±3.76 | 1.97 | .053 |

4. 음주예방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와 1년 후 음주관련 지식,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 비교

음주예방 프로그램 종료 3개월과 1년 후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지식점수는 종료 1년 후(10.4점)가 3개월 후(11.4점)보다 유의한 차이로 낮았고($t=2.25, p=.028$), 태도 점수는 1년 후(20.7점)가 3개월 후(18.8점)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았으며($t=-2.19, p=.032$), 음주거절 자기효능은 1년 후(18.4점)가 3개월 후(21.6점)보다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t=-7.20, p=.001$).

음주행위 중 음주횟수는 음주예방 프로그램 종료 1년 후(0.9회)와 3개월 후(0.6회)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t=-0.72, p=.434$), 음주량도 3개월 후(1.2잔)와 1년 후(2.6잔)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97, p=.053$) <Table 4>.

IV. 논 의

본 대상자인 실업계 여고 1학년생의 음주 경험률이 77.3%로 나타나 인문계 여고 2학년생의 68.6%(조학래, 2006)보다 높았고 수도권 고교생의 음주율인 79.5%(정다희, 2005)와 비슷한 결과였던 반면에 수도권 여고생의 80.2%(김용석, 1999), 전국 여고생의 83.3%(윤혜미 등, 1999), 중소도시 여고생의 85.6%(최원길, 2003)가 음주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본 대상자가 여고 1학년생에 불과하므로 실업계 여고생의 음주행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대상자의 80.3%가 음주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었는데 실업계 여고생의 문제 음주율(66.7%)이 인문계 여고생(35.9%)보다 훨씬 높았으며(김용석 등, 2001),

여학생의 60% 이상이 초등학교 때 술을 접했고(김용석, 2003), 70% 이상이 또래압력(41.3%)과 호기심(29.3%) 때문에 초등학교(12.7%)와 중학교(58.7%) 때 술을 처음 마신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정은희, 2004)들에 비추어 볼 때 여학생의 음주예방 교육도 중학교 이전에 이루어져야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에 측정된 음주관련 지식점수가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 고교생을 대상으로 주당 2회씩 3-4주간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음주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던 보고(김지은, 2001a)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1년 후에도 본 프로그램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그 효과가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여고생의 술과 음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종료 1년 후의 지식점수가 3개월 후보다 유의한 차이로 감소하였으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음주관련 지식수준이 낮은 고교생일수록 음주행위가 높았고(양수 등, 2003) 긍정적인 기대가 높을수록 음주수준이 높았으며(Fiorntine와 Hillhouse, 2000), 여고생의 65.3%가 '술의 위해에 대해 모른다'와 '알아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결과(정은희, 2004)들을 감안해 볼 때 본 결과는 술에 대한 정확한 지식전달을 통해 부정적인 음주기대를 높이는 반복교육의 필요성을 암시해주고 있다.

본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와 1년 후 태도점수 모두 제공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술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던 결과(이경희, 2004)와 일치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술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김지은, 2001a)와는

다르게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1년 후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종료 1년 후 태도점수는 3개월 후보다 유의한 차이로 증가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음주에 대한 태도가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향이었으며, 금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금주의도를 강하게 지녔고 비경험자가 경험자보다 더 긍정적인 금주태도(김수옥, 2008)를 나타냈으므로 금주에 대한 확고하고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유지되도록 재교육시켜야 한다.

본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음주거절 자기효능이 제공 전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는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업계 남고생인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1개월 후 음주거절 자기효능이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임경미, 2002)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1년 후의 음주거절 자기효능은 제공 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또한 음주거절 자기효능이 3개월 후보다 1년 후에 유의한 차이로 감소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프로그램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음주에 대한 자기통제감이 프로그램 제공전의 상태로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상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절주행위 이행정도가 높았고(채효숙, 2002), 거절자기효능이 낮을수록 음주의도가 높았으며(김승수, 2005),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념인 행위통제에 대한 지각정도가 금주의도를 39.3% 설명했던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비경험자가 금주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김수옥, 2008) 대상자가 음주행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교육 후 1년 이전에 주기적으로 반복 제공되어야 음주예방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프로그램 제공 전과 종료 3개월 후 음주횟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종료 1년 후 음

주횟수도 제공 전과 동일하게 나타나 본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음주횟수 감소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종료 3개월 후 음주량은 제공 전보다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종료 1년 후에는 3개월 후보다 평균음주량이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지만 제공 전보다는 여전히 감소된 상태를 나타냈다($p=0.054$). 이런 결과들은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1달 후 실험군의 음주빈도와 음주량으로 측정된 음주행위정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던 결과(김지은, 2001b)나 음주프로그램 제공 후 실험군의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었던 결과(임경미, 2002)들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연구들의 프로그램효과 측정시기가 달랐고 본 연구설계가 단일군으로 대조군비교가 없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고교생 음주행동의 보호요인으로서 가장 높은 예측력을 지닌 요인이 친구음주환경, 음주결과 기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고(조학래, 2006), 청소년의 음주행위가 또래집단의 압력과 음주행위에 의해 시작된다는 주장(Donovan, 2004)에 의하면 프로그램 종료 1년 후 본 대상자의 지식감소로 인해 긍정적인 음주기대가 형성되고 음주거절 자기효능의 감소로 인해 음주행위가 당연히 증가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주기적으로 음주예방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교생 음주행위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높은 위험요인이 친구음주환경이었고, 부모의 음주정도와 태도 및 감독정도가 이들 음주행위의 주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조학래, 2006) 앞으로 본 음주예방 프로그램 제공시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업계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 프로그램 제공 전, 종료 3개월 후와 1년 후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와 1년 후 지식점수는 모두 제공 전보다 더 높았고, 3개월 후와 1년 후 태도점수는 모두 제공 전보다 더 낮게 나타나 더 부정적인 음주태도를 보였으므로 본 프로그램 종료 1년 후에도 지식과 태도에 대한 효과가 1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종료 3개월 후 음주거절 자기효능은 제공 전보다 더 높았고 음주량은 더 낮았으나 종료 1년 후 음주거절 자기효능과 음주량은 제공 전과 차이가 없었고 3개월 후나 1년 후 음주횟수는 모두 제공 전과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종료 1년 후 지식점수와 음주거절 자기효능은 3개월 후보다 더 낮았고, 태도점수는 더 높았으며, 음주횟수와 음주량은 차이가 없었으므로 시간경과에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약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매 학기마다 주기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본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지속되어 음주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단일군이 아닌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해서 본 프로그램의 6개월 후와 1년 후 지속성을 확인해 볼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감 신, 이규희, 박기수, 김주일, 이영자, 강윤식, 김상우.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과 음주태도 및 그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0;4(2):233-253.
2. 강혜영, 신경은, 장현지, 나영희, 조은희. 일도시 고등학생의 음주동기와 음주문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4;17(2):85-96.
3. 김수옥. 여자 중학생의 음주경험과 금주의 및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08;17(1):1-9.
4. 김승수. 청소년의 음주의도와 음주행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5. 김용석. 청소년 문제성 음주와 정신증상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99;7:27-45.
6. 김용석. 청소년들의 음주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명지대학교 대학원, 2003.
7. 김용석, 김정우, 김성현. 청소년 음주행위의 실태 및 변화와 관련요인들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2001;47:71-106.
8. 김지은. 고등학생을 위한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1a.
9. 김지은. 고등학생을 위한 음주예방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한국음주문화센터, 2001b.
10. 남궁기, 이병욱, 최문중, 이충현. 중·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서울: 보건복지부, 2001.
11. 류나미, 윤혜미. 또래압력, 부모감독과 음주기대 및 청소년 음주행동의 변화추이. 한국생활과학회지 2006;15(6):891-903.
12. 배상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약물사용과 예방의식제도 방안[석사학위논문]. 청주:서원대학교 대학원, 2000.
13. 양수, 박호란, 송경애, 김남초, 조선진, 문정순. 고등학생의 음주실태. 정신간호학회지 2003;12(3):319-328.
14. 윤혜미, 김용석, 장승옥.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회지 1999;38:153-179.
15. 이경희. 음주예방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4.
16. 임경미. 음주예방프로그램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과 음주결과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2.
 17. 정다희. 청소년의 음주동기와 음주행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5.
 18. 정연옥.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도 조사[석사학위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9.
 19. 정은희. 남녀고등학생의 음주실태와 음주에 따른 식습관 비교.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4;9(1):29-37.
 20. 조학래. 고등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006; 14:51-75.
 21. 조희. 한국대학생의 음주행위 예측모형구축 [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22. 제갈정. 한국인의 음주실태. 서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1.
 23. 최남희. 일부 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한 음주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5.
 24. 최원길. 경남 일부지역 고등학생의 문제음주실태와 관련요인[석사학위논문]. 김해: 인제대학교 대학원, 2003.
 25. 채효숙. 건강신념모델을 이용한 대학생의 음주관련요인분석[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26. Donovan JE. Adolescent alcohol initiation: A review of psychosocial risk factors. *J Adolesc Health* 2004;35(6):7-18.
 27. Ellickson, P, Collins, R, Hambarsoomians, K, McCaffrey, D. Does alcohol advertising promote adolescent drinking? Results from a longitudinal assessment. *Addiction* 2005;100(2):235-246.
 28. Fiorntine R, Hillhouse M. Self-efficacy, expectancies, and abstinence acceptance: Further evidence for the addicted-self model of cession of alcohol and drug dependent behavior. *Am J Drug Alcohol Abuse* 2000;26(4):497-521.
 29. Qian L, Yi HG, Tian BC, Zhang W, Zhang JB. Alcohol consumption and drug us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ged 13-15 in 4 cities of China. *Zhonghua Liu Xing Bing Xue Za Zhi* 2006;27(6): 483-487.
 30. Tuomilehto J, Lindstorm J, Eriksson JG. Prevention of type 2 diabetes mellitus by changes in lifestyle among subjects with impaired glucose tolerance. *N Engl J Med* 2001;344:1343-5